

스코틀랜드의 영국 잔류 선택과 분리 독립 운동의 전망: 복합적 지역주의에 따른 분권적 자치

정병기 | 영남대학교

스코틀랜드는 독자적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치권 확보 과정을 거치면서 분리 독립보다 자치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것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 정도가 더 약하다는 사실과 더 강력한 자치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지만 2014년 주민 투표에서 나타났듯이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역 차원에서는 스코틀랜드 민족당을 통해 대변하고 전국 차원에서는 노동당을 통해 대변하고자 한다. 그 대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다. 따라서 제2차 대전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종족-문화적 요인을 토대로 하고 정치 경제적 요인이 직접적 동원의 계기로 작용하는 복합적 지역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 표출 형태는 지역과 전국이라는 차원에서 각기 다른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이며, 목표는 분리 독립을 폐기하지 않는 가운데 분권적 자치로 나타났다.

주제어: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독립 주민 투표, 자치, 종족-문화, 정치 경제

I. 서론

2014년 9월 18일, 분리 독립을 결정하는 스코틀랜드의 주민 투표는 영국 잔류로 결정 났다. 투표 참여율은 84.6%에 달해 영국 투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스코틀랜드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분리 독립 운동은 55.5%의 반대에 부딪혔다. 물론 투표를 앞두고 정당들 간 캠페인을 통해 분권을 더욱 확대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리고 투표 이전의 각종 여론 조사를 볼 때, 영국 잔류 선택이라는 결과가 이번은 아니었다.

이를 반영하듯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민 투표 이후 이를 포함해 스코틀랜드의 독립 운동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게재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외적으로 워커(Walker 2014)와 윤성욱(2014)의 논문이 주민 투표나 이 투표를 포괄하는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을 다루었을 뿐이다.

스코틀랜드 주민 투표와 관련해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번 없이 영국 잔류로 결정 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분리 독립을 목표로 창당된 스코틀랜드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이 스코틀랜드 정부를 장악하고 주민 투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쟁취해냈던 만큼 투표가 분리 독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실제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졌고 투표 당일에는 그 결과를 감히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표 결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은 이번 주민 투표 결과가 분리 독립을 향해 민족 의식을 고양시켜 가는 과정이었는가 아니면 자치에 안주하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대표하는 결과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실제 영국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저항 운동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그 주장이 언제나 분리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로 현재와 같이 분권화를 통한 자치를 주장했고 이번 주민 투표 결과처럼 자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스코틀랜드의 저항 운동은 분리 독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치주의까지 포괄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의 저항 운동은 자치권 확보에 그칠 수도 있는 지역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서 지역주의 운동은 독자적 민족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독립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동원되는 현상인 민족주의 운동과 달리 특정 지역이 중앙 국가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포괄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 정의에 따를 때 민족주의 운동은 지역주의 운동의 한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이 글은 2014년 스코틀랜드 주민 투표 결과의 원인을 그동안 진행되어온 스코틀랜드 자치 및 독립 운동과 함께 지역주의 운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찰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고 변화되었는가? 둘째, 이 운동의 결과로 스코틀랜드의 분권화와 자치는 어떻게 확보되어 왔는가? 셋째, 종족-문화적 요인과 정치 경제적 요인이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과 결과는 어떠한가? 이때 마지막 문제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고찰한 두 문제를 토대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

며, 세 문제 모두 2014년 주민 투표 결과까지 연결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분석에 앞서 왜 종족-문화적 요인과 정치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지역주의 이론을 고찰한다.

II. 지역주의 이론 검토와 접근 방법

지역주의 이론은 크게 확산 이론(diffusionstheory), 내부 식민주의 및 문화적 분업 이론(theory of internal colonialism & cultural division), 존속론(persistence theory), 사회운동론(These des Regionalismus als soziale Bewegung)으로 나눌 수 있다(정병기 2000 참조). 우선, 근대화론에 입각한 확산론은 지역주의 운동을 고답적이고 비이성적인 인습적 동원으로 규정하며 중국에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Blaschke 1989; Esser 1988 참조). 지역주의적 동원은 근대화에 대한 전통 지역의 저항으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 지역인 중심부의 문화가 전통적 지역으로 남은 주변부로 확산됨으로써 사라진다는 것이다. 확산론은 근대화 이후 발전된 국가와 지역에서 일어난 현대 지역주의 운동을 통해 이미 수많은 반증에 부딪혀 이론적 위상을 상실했다.

내부 식민주의 및 문화적 분업 이론은 방법론적으로 종속이론적 정치 경제학에 입각한다(Hechter 1973; 1975; 1978; 1985). 이 이론을 정립한 헤치터(Hechter 1973; 1975; 1978; 1985)에 따르면, 지역주의 동원은 중심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의 종속 저발전이라는 착취 구조의 성립을 의미하는 내부 식민지화나, 특정 지역 종족 그룹에 대한 사회적 차별 계층 구조라는 문화적 분업에서 비롯된다. 문화적 분업은 직업 구조상 특수화를 의미하는 파편화 차원과 사회 계층 구조상 위계화를 말하는 위계화 차원이라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구분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의 지역주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양한 종족 그룹들의 사회 경제적 역할은 파편화 차원에서 수평적 직업 구조상 차별에 처하는 한편, 위계화 차원에서 수직적 계층 상승의 억제를 받는다. 이 때 사회 경제적 역할에서 특수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계층 구조상 지위가 낮을수록, 차별의 정도가 심하고 그에 따라 차별받는 특정 종족 집단 내의 연대는 높게 나타난다.

특히 헤치터의 논의(1973; 1975; 1978; 1985)는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 운동을 직접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중에서도 저지대(Lowlands)와

고지대(Highlands)가 정치 경제적 발전 정도의 상이함에 따라 지역주의 동원의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은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 분석뿐 아니라 지역주의 이론에도 주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 개념들은 노동 시장에 경향 지어진 구상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식민주의 논의와 문화적 분업 논의가 모두 종족의 실재라는 전제 위에서 전개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종족 문화적 차이가 없거나 종족 문화적 이질성에 기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속론은 코너(Connor 1967; 1977; 1993)와 스미스(Smith 1969; 1979; 1984; 1986)의 문화 사회학이 시도한 이론으로서 내용상 종족 존속론이 정확한 표현이다.¹⁾ 종족(ethny)과 민족(nation)을 구별하는 존속론자들에게 지역주의는 궁극적으로 독자적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종족의 정치적 동원이나 이를 근거지우는 이념이다. 이들에게 지역주의는 종족 대중들이 민족 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므로, 지역주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종족의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독자적 민족 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종족적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고 분리 독립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지역주의 운동들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론은 게르데스(Gerdes 1980; 1985; 1987a; 1987b)가 제창한 사회운동론이다. 정치 과정론적 설명을 강조하는 이 이론은 지역주의나 지역주의 운동을 종족-문화적, 정치 과정적, 경제 구조적 또는 이들의 복합적 집중화 과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원으로 규정한다. 게르데스에게 있어 지역주의 운동은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서, 정파적 정체감의 사회적 지평과 상징화된 목적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표출 형태들과 목표들이 공존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전개된다. 게르데스는 특히 중앙 국가의 갈등 해결 능력과 그에 대항하는 지역 세력들의 동원 능력도 중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론은 지역주의 운동을 사회 운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당의 형태로 표출된 지역주의 운동의 특수성을 간과했다.

이 글은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큰 사회운동론을 수용하되 사회적 동원으로 나타나는 사회 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민족당으로 표출되는 정당 정치의 맥락

1) 지역주의에 관해 코너는 '종족 민족주의'(Ethnonationalism)로, 스미스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로 각각 정의했다.

에도 초점을 둔다. 우선,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의 표출 형태와 목표 및 그 구체적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2014년의 주민 투표가 지역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본다. 이어 종족-문화, 경제, 정치라는 세 요인의 구분을 원용하되 경제적 차이는 정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고 실제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그러했으므로 정치와 경제를 정치 경제로 통합해 분석한다. 그에 따라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자치 혹은 분리 독립 주장으로 연결되고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III.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 운동과 자치권 확대

1.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의 표출 형태와 목표

스코틀랜드는 웨일스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더 정확하게는 잉글랜드)에 통합된 지역이며, 최종적 통합은 웨일스와 마찬가지로 왕조 통합을 거친 후 합법적 통합을 통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웨일스에 비해 한 세기 반이나 늦었을 뿐 아니라 종족-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강력해 오랫동안 무력 저항을 지속해 왔다.²⁾

왕가의 결혼 관계를 통해 평화적 관계를 지속해온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1284년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해 봉신왕(vassal king)으로서 스코틀랜드에 군림하면서부터 갈등하기 시작했다(홍성표 2007). 그에 따라 잉글랜드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독립 전쟁'이 전개되었는데, 이 전쟁은 1363년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의 독립국가성을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두 왕국의 갈등과 잉글랜드의 간섭은 끝나지 않아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전쟁이 종식된 것은 개전 후 87년이 지난 1371년에 로버트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2세로 즉위하는 데 두 왕국이 합의한 후였다(홍성표 2008).

독립 전쟁이 종식된 후 약 150여 년간 큰 전쟁은 없었으나 잉글랜드는 항상 스코틀랜드를 포함하는 대브리튼 제국을 건설하려 했고 스코틀랜드는 그에 저항했다. 이러한 갈등은 1603년 잉글랜드 왕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사망한 후 1606년 스코틀

2) 스코틀랜드의 통합 및 분권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병기(2014)의 글을 참조.

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해 스튜어트 왕조를 개창함으로써 통합되었다. 이어 1707년 메리 여왕 때 통합법(Act of Union)에 따라 대브리튼 연합 왕국이 성립되어 스코틀랜드는 평화적·합법적 방식으로 잉글랜드와 통합했다.

그러나 이 통합법에 따른 통합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제력 차이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내부에서도 저지대와 고지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겪어야 했다. 종교 개혁을 일찍 수용한 저지대는 잉글랜드의 봉건제를 수용해 내륙 유럽식 봉건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가톨릭을 오래 유지해온 고지대는 오랫동안 고유의 친족 제도(Clan system)를 유지했다(김중락 2012). 그에 따라 잉글랜드에 대한 태도도 달리 나타났는데, 고지대는 잉글랜드 왕실이 가톨릭을 고수할 때 잉글랜드와 가까워진 반면 저지대는 종교 개혁이 성공한 이후 잉글랜드와 가까워졌다.

독립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통합 과정을 밟아온 만큼 1707년 이후 스코틀랜드의 저항은 내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물론 지속적으로 자치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지역주의가 다시 강화된 것은 19세기 중반 자치(home rule) 운동이 형성된 이후였으며, 이 운동은 19세기 말 대영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영국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지역은 실업 등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국 남동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써 지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Thomsen 2010, 64).

이러한 새로운 차별에 대해 스코틀랜드인들은 고지대와 저지대의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73년에 발견된 북해 유전은 스코틀랜드만 사용하면 250년간 쓸 수 있는 훌륭한 부의 원천인데, 이 북해 유전을 영국 전체가 사용하면 불과 25년 만에 고갈되고 그로부터 얻는 부가 런던으로 유입된다는 인식이 공동의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호광석 1997, 153).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마지막 분권화 주민 투표가 실시된 1997년까지 이루어진 여론 조사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표 1〉 참조). 1945년 스코틀랜드 전체 주민들의 8%에 불과했던 분리 독립 추구 경향이 1974년에는 거의 세 배에 가까운 21%로 증가했고 1989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4%까지 상승했다. 반면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비율은 1945년 39%에서 1989년 15%까지 줄어들었다. 1980년대 말까지 스코틀랜드 지역주의가 분리 독립을 목표로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표 1〉 스코틀랜드인들의 스코틀랜드 위상 관련 추구 경향(1974~1997년)

| | 1945 | 1974 | 1984 | 1989 | 1992 | 1997 |
|-------|------|------|------|------|------|------|
| 분리 독립 | 8 | 21 | 25 | 34 | 23 | 26 |
| 분권 확대 | 53 | 44 | 45 | 49 | 50 | 51 |
| 현상 유지 | 39 | 34 | 27 | 15 | 24 | 17 |

출처: 톰센(Thomsen 2010, 63, 84); 브라운 외(Brown et al, 1998)

하지만 199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어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주민들은 1992년에 23%까지 감소했고 1997년에는 반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수준인 26%에 머물렀다. 이러한 추세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경향의 증가로 이어져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민들은 1992년 2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1997년에 다시 크게 하락해 17%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추세에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경향은 분권 확대로서 1974년 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7년에는 51%를 기록했다. 영국에 잔류하면서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다수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2014년 주민 투표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분리 독립과 영국 잔류의 양자택일이라는 점에서 상기 여론 조사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보수당과 노동당이 한결같이 분권 확대를 약속함에 따라 기존의 분권 확대 추구 경향의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많은 비율이 분리 독립 지지로 이동해 전체 주민들 중 약 45%가 독립에 찬성함으로써 독립 추구 경향은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자치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영국 잔류를 선택함으로써 최소한 스코틀랜드의 독립 국가 수립은 시기상조임이 드러났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지역주의가 분리 독립보다는 자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스코틀랜드의 분권화 주장과 자치권 확대 과정

대영 제국이 부흥하던 시절에 스코틀랜드는 성공적으로 영국에 통합되는 듯했다. 특히 18/19세기 산업사회 이행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통합의 역

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영석 2002, 60-68 참조). 그 대표적인 학자로 역사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는 윌리엄 로버트슨(William Robertson),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애덤 스미스(Adam Smith)을 비롯해, 문학 분야에서 저명한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로버트 번즈(Robert Burns), 조지 톰슨(George Thompson)을 꼽을 수 있다. 공학 분야에서도 토머스 텔포드(Thomas Telford) 같은 걸출한 스코틀랜드 학자들이 학술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영 제국의 부흥에 기여했다.

당시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Scottish Enlightenment)으로 불리는 학술 활동을 통해 영국 문화의 주류를 이루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 일반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런던, 파리, 비엔나에 못지않은 학문적 명성을 얻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다운 것이 곧 브리튼다운 것으로 발전하고 인정되는 현상을 대변함으로써 두 왕국의 통합이 당시의 통합적 자유주의의 원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했다.

스코틀랜드의 통합은 비단 지식인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통합적 자유주의라는 흐름은 노동자 계급에게도 영향을 미쳐 참정권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곧, 1830~40년대에 일어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에 스코틀랜드 노동자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이다(남철호 2012a, 277; 남철호 2012b 참조). 현대 부르주아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흥하던 대영 제국의 영광이 스코틀랜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는 민족 의식으로 되살아났다(홍성표 2010, 17-18). 실제로 민족주의가 주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목소리도 커져갔고,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일단의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관된 ‘스콘의 돌’(the Stone of Scone)³⁾을 훔친 사건은 그 상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이 돌은 다시 웨스트민스터로 돌아갔지만, 분리주의를 다시 각인시켜주었고, 40여 년이 지난 후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수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1997년)를 앞두고 스코틀랜드인들을 달래기 위해 1996년에 스코틀랜드로 반환되었다(이영석 2002, 71).

3) ‘운명의 돌’이라고도 하며, 스코틀랜드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돌로 1296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잉글랜드로 가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두었다.

〈표 2〉 스코틀랜드 위상 관련 주민 투표

| 안건(날짜) | 질문 | 찬성 반대 | | 투표 참여율 | 결과 |
|------------------------|-------------------------------|-------|------|--------|---|
| | | | | | |
| 스코틀랜드 분권 (1979년 3월) | 1978년 스코틀랜드법 실행을 원하는가? | 51.6 | 48.4 | 63.6 | 유권자 전체의 40% 이상이라는 요건에 미달해(32.8%) 분권 실현 안 됨. |
| 스코틀랜드 분권 (1997년 9월) | 스코틀랜드 의회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74.3 | 25.7 | 60.2 | 스코틀랜드 의회 수립 |
| | 스코틀랜드 의회가 조세권을 가져야 하다고 생각하는가? | 63.5 | 36.6 | 60.2 | 조세권 부여 |

출처: 맥린 외(McLean et al. 2013, 4-5)의 일부

이러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과 함께 북해 유전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유전 개발은 특히 스코틀랜드인들로 하여금 영국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민족당이 분리 독립 운동을 선도해 나가게 되었으며, 1979년과 1997년에 분권을 위한 주민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비록 1979년 주민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0%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치권 획득에 실패했지만(〈표 2〉 참조), 유효 투표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을 동원해냄으로써 이후 지역 자치권 획득에 대한 스코틀랜드인들의 열망을 격렬한 저항으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물론 1979년 이후 약 20여 년 동안 강력한 중앙 권력을 추구한 영국 보수당의 대처주의(Thatcherism) 정책에 따라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중앙집권화가 추진되었다(윤익중 2003, 197-198 참조).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 저항은 지속되어 1987년 총선 후 ‘스코틀랜드 헌법회의’(Scottish Constitution Convention)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정당, 지방 정부, 교회 그리고 각종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한 이 회의는 스코틀랜드 지역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 결과 1995년에는 자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스코틀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권리』(Scotland’s Parliament, Scotland’s Right)라는 백서가 발간되었으며, 이후 이 백서는 ‘스코틀랜드 법’(The Scotland Act)의 근간이 되었다.

〈표 3〉 스코틀랜드 의회에 이양된 권한

| 권한 유형 | 권한 내용 예시 |
|-------------------|---|
| 보건 관련 권한 | 스코틀랜드의 NHS(국민보건서비스기능), 공공 보건, 정신보건 서비스, 보건전문가 교육 및 훈련, NHS 직원 및 일반 의사(GP) |
| 사회복지 및 주택 관련 권한 | 어린이 복지, 자원 봉사, 주택, 기업지구(enterprise zone) 설정 및 지역재생, 토지이용 계획 및 건축 통제 |
| 교육과 훈련 관련 권한 | 5세 이전 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 학교감독 기능, 교사 충원, 교육서비스 조건, 스코틀랜드 고등 및 대학 교육의 정책 및 재정, 과학 및 연구 재정, 훈련 책임, 직업 교육, 직업 자문 및 지침 |
| 지방정부 관련 권한 | 지방정부의 재정, 지방세, 비거주레이트세, 도시 계획 |
| 사법 관련 권한 | 형법 및 절차, 민법, 지방선거 관련법, 형사 사법 및 기소 제도, 사법직원 임명, 형상 및 민사 법원, 이양사항 관련 재판, 법률 지원, 가석방과 종신적인 석방 및 오심, 교도소 |
| 농·임·어업 관련 권한 | 농장, 시품 표준, 임업 지원, 어업 지원 |
| 환경 관련 권한 | 환경 보호, 토지 및 수질 오염, 동물원 허가, 야생동물 통제 및 관리, 홍수 예방과 해안선 보호 및 저수지 안전 |
| 경찰과 소방 관련 권한 | 경찰 및 소방 기능, 민방위 및 긴급구조, 국제적 사법공조체제 관련 기능(어린이 유괴 등) |
| 스포츠·관광·문화유산 관련 권한 | 스포츠 지원, 관광 진흥, 문화유산 관리, 예술 지원 |
| 경제개발 및 교통 관련 권한 | 지방기업 지원, 산업 진흥, 투자 유치, 교역과 수출 증진 |
| 통계 및 기록 관련 권한 | 통계 관리, 공공 등록, 기록물 관리 |

출처: 최영출(2009, 129-130).

1997년 주민 투표는 이러한 지역주의 저항의 결실이었다. 이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1979년에 실패한 폭넓은 분권화에 성공했는데, 이를 통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자치권을 허용하는 스코틀랜드 법이 이듬해 영국 의회를 통과했다(안영진 2003, 115; 윤익중 2003, 198-199). 그에 따라 스코틀랜드 헌법회의도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현대 지방정부: 주민과 함께 하며』(*Modern Local Government: In Touch with People*)와 『지역의 리더십, 지역의 선택』(*Local Leadership, Local Choice*)이라는 백서를 발표해 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스코틀랜드 주민에게 고지하였으며,

이 의견들도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이 법에서 인정된 스코틀랜드 자치권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스코틀랜드만 예외적으로 소득세의 표준율을 변경시킬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최영출 2009, 128, 131-137). 이제 영국 중앙 정부는 스코틀랜드에 대해 유보 사안(reserved matt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단을 통해 느슨하게 관여하고 있다. 영국 중앙 정부가 유보 사안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유보 권한(reserved authorities)은 헌법, 외교, 국방, 국제 개발, 중앙 공무원, 재정 및 경제, 국가 안전, 이민 및 국적, 마약 남용, 통상 및 산업, 에너지 규제(전기, 석탄, 석유 및 가스, 핵), 사회보장, 고용, 낙태·유전공학·대리모제도·의약, 방송, 기회균등 등에 한정되었다. 그밖에 스코틀랜드 의회에 이양된 권한은 <표 3>와 같다.

2014년 주민 투표 실시는 이러한 지역주의 강화에 힘입어 분리 독립까지 추구하게 된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잔류로 결정된 투표 결과는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적 민족주의에서 자치주의로 완화되었거나 적어도 아직은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정치적 민족주의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달리 말해 이것은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1997년에 확보된 자치권에 대해 이를 좀 더 확대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운동의 요인과 그 변화

1. 종족-문화적 요인과 변화

스코틀랜드인들은 웨일스인들보다 민족 정체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고지대와 저지대로 분열되어 있었다. 16세기 초 스코틀랜드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된 두 개의 국가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그 종족-문화적 차이의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김중락 1998; 2011; 2012 참조). 저지대인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 족이었으며 그 지배층은 노르만 정복 이후 정착한 노르만 귀족들이었다. 반면, 고지대인들은 주로 게일어(Gaelic)를 사용하는 켈트인들이었으며 고대로부터 토착민이었던 픽트족(the Picts)과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스코트족(the Scots)이 인종적으로 혼합되어 7세기 이후 새로운 토착민을 형성했다.

종교적으로도 저지대인들은 1560년에 칼뱅주의 종교 개혁과 장로교를 수용한 반면, 고지대인들은 서남부 캠펠(the Campbells) 친족과 동부 지역의 일부 친족을 제외하고 모두 16세기 말까지 가톨릭을 고수했다. 또한 12세기경부터 18세기 말까지 친족 제도에 의해 지배된 고지대 사회 구조는 친족장과 피를 나눈 직계 그룹 및 친족장의 권위를 인정한 일가(一家, septs)로 이루어진 친족을 지배층으로 하고, 친족장과 아무런 혈연 관계 없이 강제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원주민으로 구성되었다(김중락 2012, 7-8).

이와 달리 1638년 북쪽 고지대와 에버딘(Aberdeen)을 제외한 모든 저지대의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일부 귀족들과 하급 성직자들의 인도 하에 순수 스코틀랜드 장로회 제도를 지킨다는 종교적 성격의 국민 계약(the National Covenant)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김중락 1998, 145). 물론 고지대에서도 캠펠 친족처럼 종교 개혁을 수용한 지역이 있었고,⁴⁾ 국민 계약 운동이 초기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무력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잉글랜드도 종교 개혁을 수용함에 따라 저지대는 고지대와 멀어지는 한편 잉글랜드와 가까워져갔다.

사실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까지 아우르는 영국인의 정체성 혹은 ‘브리튼 다움’(Britishness)은 대개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이영석 2002, 66-68). 여기에는 프랑스와 벌인 전쟁이 큰 역할을 수행했는데, 17세기 말 이래 프랑스와 영국은 9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그 명분과 원인은 다양해 에스파니아 왕위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슐레지엔 영유권 다툼), 미국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이 이어졌다. 이 싸움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직·간접적으로 격돌했으며 대부분 영국이 승리했다. 특히 가톨릭 프랑스에 맞서 통합된 영국의 일부로서 스코틀랜드는 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대영 제국의 수립에서 스코틀랜드가 수행한 역할도 지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부심 속에는 이미 브리튼의 정체성이 깊숙이 녹아들었다고 평가된다.

4) 고지대에서는 친족들 간의 전쟁이 잦아 1573~1625년간 365건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맥도날드(the MacDonalds) 친족과 캠펠 친족의 싸움이었다. 캠펠 친족은 왕실과 가까이 지내면서 저지대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여 아가일 백작(Duke of Argyll)이라는 작위를 받고 종교 개혁을 수용한 반면, 고지대 서부 섬들을 통치하던 맥도날드 친족은 고지대의 정치적 독립과 게일 문화를 지키고자 했다(김중락 2012, 3-4).

이를 두고 맥크론(McCrone 1992; 2001)은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를 ‘국가 없는 민족주의’(stateless nationalism)로 간주하기도 한다.⁵⁾ 그는 스코틀랜드가 영국 내에 통합된 상태를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설명한다(McCrone 2005). 첫째는 스코틀랜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언어, 종교 등과 같은 문화적 특징이 독립 국가를 수립할 정도로 충분히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연성 문화적’(culture-lite)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스코틀랜드가 문화적 도상(iconography)이 헤게모니적이고 왜곡되어서 변형된 담론들을 유발했다는 의미에서만 ‘경성 문화적’(culture-heavy)이라는 것이다.

사실 스코틀랜드에 비해 분권이 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주하고 문화적 통합 정도가 더 크게 진척된 웨일스에 비해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정체성이 더 뚜렷하다는 점에서 맥크론의 주장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적어도 19세기에 깊이 있게 진척된 통합은 이러한 연성 문화적 성격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960년대에 대영 제국의 영광이 약화되면서 지역주의가 다시 강화되기는 했지만 과거 독립 전쟁 시기와 같은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폭넓게 생겨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7년 마지막 분권화 주민 투표에까지 잘 반영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스코틀랜드인들 중에는 영국인의 정체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비중도 26.7%에 달하며, 여기에 영국인보다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비율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60.6%에 달한다. 1707년 통합이 이루어진 후 약 3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스코틀랜드인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 정체성이 분리 독립 추구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배타적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분권 확대 차원의 자치에 만족하는 비중이 36.4%에 달했고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경향도 9.7%를 보였다. 이 수치는 배타적 영국인 정체성이나 상대적 영국인 정체성을 가진 주민들이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는 경향

5) 1992년 제1판 제목에서 ‘국가 없는 민족’(stateless nation)을 사용했다가 2001년 제2판 제목에서는 분권화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국가 없는’(stateless)이라는 개념을 삭제했다. 그러나 제2판에서도 내용상으로는 ‘국가 없는 민족주의’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로와 무니(Law and Mooney 2012, 173)도 유사한 맥락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를 ‘국가 없는 민족주의’의 하나로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는 복지 민족주의(welfare nationalism)로 규정하기도 한다.

〈표 4〉 1997년 주민투표 투표 경향과 민족 정체성(%)

| | 현상 유지 | 분권 확대 | 분리 독립 | 전체 |
|--------------------|-------|-------|-------|-------|
| 영국인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인 | 9.7 | 36.4 | 53.9 | 26.7 |
| 영국인보다 스코틀랜드인 | 21.3 | 53.9 | 24.8 | 33.9 |
| 경중 없이 영국인 겸 스코틀랜드인 | 48.1 | 45.2 | 6.6 | 28.8 |
| 스코틀랜드인보다 영국인 | 63.2 | 33.8 | 2.9 | 5.7 |
| 스코틀랜드인이 아니라 영국인 | 59.2 | 37.9 | 2.9 | 4.9 |
| 전체 | 31.6 | 44.6 | 23.8 | 100.0 |

출처: 존스 외(Johns et al. 2009, 218).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후 현재까지 이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흐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1997년의 주민투표 경향이 지속되었거나 적어도 분리 독립 추구 경향이 강화되었지만 다수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

이러한 변화는 스튜어트 리쓰(Stewart Leith 2008, 86-89)가 잘 추적했다. 비록 스코틀랜드인의 인식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민족당의 강령을 분석한 것이었지만 그가 1970~2005년 동안의 자료를 추적한 바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은 종족적·배타적 성격에서 시민적·통합적(civic and inclusive) 성격으로 변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970년대에 스코틀랜드인들은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스코틀랜드인의 독자적 정체성(scottishness)에 대한 정의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피착취 지역이라는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배타적인 민족적 정체성은 1980년대에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잉글랜드의 후미진 주변부 지역'(a provincial backwater of England)이라는 경제적 인식과 연결되었다. 이어 1990년대에 경제적 차별 의식은 더 강화되지만 독자적 민족 정체성은 다시 약화되어 스코틀랜드 사회를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21세기에 와서는 더 이상 강력한 민족주의 수사가 동원되지 않게 되었

6) 1998년 봄에 진행된 해슬리(Haesly 2005, 246-251)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해슬리의 분석 결과를 좀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성향을 가진 주민들은 26.6%였고, 스코틀랜드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proud) 분리 독립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주민들이 25.3%였던 반면, 시민적(civic) 정체성을 가진 온건한 분권화나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30.4%에 달했다.

다. 이와 같이 현재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종족-문화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 경제적 요인과 결합하거나 오히려 정치 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치 경제적 요인과 변화

2014년 주민 투표에서 경제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대립하는 두 진영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캠페인을 통해 잘 드러났다. 스코틀랜드 정부 수반 새먼드(Alex Salmond)는 독립을 선택할 경우 스코틀랜드인들은 연간 개인당 1000파운드 혹은 가정당 2000파운드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영국 재무차관 알렉산더(Danny Alexander)는 오히려 영국에 잔류할 경우 스코틀랜드인은 분리 독립에 비해 연간 개인당 1400파운드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Cuthbert and Cuthbert 2014, 11). 각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이겠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주장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갔던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선택과 결합할 때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스코틀랜드 지역주의의 정치 경제적 요인은 19세기 말 이후 대영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가시화되었다.⁷⁾ 통합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점차 해소되어 잉글랜드와 차별이 거의 없었던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지위조차 경제적 위기에 따라 위협에 노출되었다. 스코틀랜드는 그동안 부의 원천이었던 해외 식민지의 상실을 만회하려는 잉글랜드의 새로운 공략 대상지인 내부 식민지로 변해 갔다(Hechter 1975).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현지의 기업들을 차츰 소유하기 시작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상공 자본가들이 사라져갔으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의 불황에 직면해서 잉글랜드의 모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스코틀랜드 지사들을 폐업시켰다(호광석 1997, 153). 이처럼 철저하게 잉글랜드의 부를 위해 스코틀랜드를 활용한 결과 스코틀랜드의 실업률은 늘 잉글랜드보다 높고, 스코틀랜드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더욱 잉글랜드에 종속되어 갔다(Brand

7) 대영 제국 시대에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 수혜도 상당하게 받고 있었다. 1885년부터 1939년 사이 기간에 식민지 통치 관료의 1/3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이것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국인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이었다(윤성욱 2014, 167 참조).

〈표 5〉 1인당 총부가가치(GVA)(영국 전체=100)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잉글랜드 | 102.6 | 102.7 | 102.7 | 102.7 | 102.7 | 102.7 | 102.6 | 102.5 | 102.5 | 102.5 | 102.5 | 102.4 |
| 웨일스 | 76.7 | 76.3 | 76.3 | 75.9 | 75.7 | 75.6 | 75.6 | 75.2 | 74.7 | 73.9 | 73.3 | 74.0 |
| 스코틀랜드 | 94.3 | 94.2 | 94.0 | 94.1 | 94.1 | 94.6 | 95.4 | 96.4 | 96.8 | 97.8 | 98.8 | 98.7 |
| 북아일랜드 | 80.6 | 80.7 | 80.4 | 79.4 | 79.5 | 79.9 | 80.2 | 80.1 | 79.5 | 77.9 | 76.2 | 76.4 |

출처: 맥린 외(2013, 33).

1985, 290-292).

1977~2007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영국 전체가 2.8%인 데 비해 스코틀랜드는 2.3%에 불과했으며, 1998~2011년 기간에도 영국 전체가 2.0%인 데 비해 스코틀랜드는 1.8%였다(McLaren and Armstrong 2014, R4). 1999년 이후 1인당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를 보더라도 스코틀랜드는 영국 전체에 비해 94~99%이며 잉글랜드와 비교해 보면 수치는 더욱 낮아진다(〈표 5〉 참조). 하지만 웨일스나 북아일랜드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처지가 현저히 나은 편이다. 스코틀랜드의 분권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이것은 스코틀랜드 지역주의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특히 북아일랜드와 비교할 때 분리독립의 주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종족-문화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도 스코틀랜드는 고지대와 저지대의 차이가 심각했다. 고지대는 대부분 높은 산과 골짜기 그리고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 농사에는 부적합하고 목축만 가능할 정도로 지형이 험한 곳이었던 반면, 저지대는 고지대 못지않은 험한 국경 지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며 중세 초엽 이후 스코틀랜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김중락 2012, 4).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지대와 저지대는 지역주의의 정치적 표출도 달리 나타났다. 고지대인들은 저지대인들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저지대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 운동을 벌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두 지역 친족들 간 갈등에서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김중락 2012). 그러나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두 지역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197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스코틀랜드라는 단일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기 시작했다. 2014년 주민 투표에서도 고지대 주민들이 보인 독립 반대 지율은 52.9%여서 다른 지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cotland's

〈표 6〉 스코틀랜드민족당의 영국 총선 득표 결과

| 연도 | 영국 전체 득표율 | 스코틀랜드 지역 득표율 | 의석 수 |
|-----------|-----------|--------------|------|
| 1935 | 0.0 | 1.1 | 0 |
| 1945 | 0.0 | 1.2 | 0 |
| 1950 | 0.0 | 0.4 | 0 |
| 1951 | 0.0 | 0.3 | 0 |
| 1955 | 0.0 | 0.5 | 0 |
| 1959 | 0.1 | 0.5 | 0 |
| 1964 | 0.2 | 2.4 | 0 |
| 1966 | 0.2 | 5.0 | 0 |
| 1970 | 1.1 | 11.4 | 1 |
| 1974(2월) | 2.0 | 21.9 | 7 |
| 1974(10월) | 2.9 | 30.4 | 11 |
| 1979 | 1.6 | 17.3 | 2 |
| 1983 | 1.1 | 11.7 | 2 |
| 1987 | 1.2 | 14.0 | 3 |
| 1992 | 1.8 | 21.5 | 3 |
| 1997 | 2.0 | 22.1 | 6 |
| 2001 | 1.8 | 20.1 | 5 |
| 2005 | 1.5 | 17.7 | 6 |
| 2010 | 1.7 | 19.9 | 6 |

출처: 정병기(2014, 117).

Referendum).

무엇보다 스코틀랜드민족당에 대한 지지율 증가가 이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표 6〉 참조). 1970년 영국 총선에서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이전 선거에 비해 두 배로 득표율을 제고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차지했으며 1974년에는 30.4%라는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획득했다. 1980년대에는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1990년대의 지역주의 활동 강화에 힘입어 다시 20%대를 넘은 후 지속적으로 이 지지율을 넘나들고 있다.

스코틀랜드민족당은 1928년 창당돼 독립을 추구한 민족스코틀랜드당(National Party of Scotland)과 1930년대 초에 창당돼 자치를 추구한 스코틀랜드당(Scottish Party)이 1934년 통합해 재창당된 정당으로서 강건파와 온건파를 모두 포괄했다(안영

진 2003, 111). 그러나 1942년 온건파가 스코틀랜드연합(SU)으로 분당해 나감으로써 분리 독립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정당으로 전환했다. 스코틀랜드연합은 곧 스코틀랜드 총회(SC)로 개칭해 1940년대 자치를 위한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스코틀랜드민족당에 비해 대중적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는 비록 노동당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자치에 대한 스코틀랜드인들의 열망이 매우 커져 보수당도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없었다. 2012년 보수당의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수상이 새먼드 스코틀랜드 정부 수반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다(허진석 2012).

한편, 스코틀랜드법에 따라 1999년 5월 6일에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선거가 처음 실시되어 첫 번째 회의가 같은 해 5월 12일에 개최되었다. 이 선거에서 스코틀랜드민족당은 27.3%의 득표와 35석을 얻어 33.6%의 득표와 56석을 얻은 노동당에 이어 제2당에 머물렀다(〈표 7〉 참조). 차기 선거인 2003년도 선거에서도 스코틀랜드민족당은 20.9%와 27석으로 여전히 노동당에 비해 8.4%p와 23석이 적은 제2당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대 말 노동당 분권화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지역의회 선거에서 스코틀랜드민족당은 노동당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했으며, 2011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의 두 배에 가까운 44.0%의 득표와 53.5%의 의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어 정권을 장악했다. 자치에 대한 스코틀랜드인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듯이 영국 의회 선거에서는 아직 스코틀랜드민족당의 득표율이 충분히 높지는 않아서 스코틀랜드인의 의지는 분리 독립에 대한 지지보다는 자치에 대한 지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스코틀랜드민족당에 대한 지지율이 1979년과 1997년 주민 투표를 변곡점으로 다시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1979년의 분권화 투표는 실패한 반면 1997년의 분권화 투표는 성공해서 그 결과가 대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1997년 주민 투표를 통해 스코틀랜드 자치권이 확립되고 독자적 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1979년 이후의 지지율 하락이 분권화 실패에 따른 실망감의 표현이었다면, 1997년 이후의 지지율 하락은 지지율이 자치 의회 선거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실제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2003년에 지지율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1년에는 1999년

〈표 7〉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결과

| | 1999 | | 2003 | | 2007 | | 2011 | |
|---------------|------|-----|------|-----|------|-----|------|-----|
| | 득표율 | 의석수 | 득표율 | 의석수 | 득표율 | 의석수 | 득표율 | 의석수 |
| SNP | 27.3 | 35 | 20.9 | 27 | 31.0 | 47 | 44.0 | 69 |
| LAB | 33.6 | 56 | 29.3 | 50 | 29.2 | 46 | 26.3 | 37 |
| CON | 15.4 | 18 | 15.5 | 18 | 13.9 | 17 | 12.4 | 15 |
| LD | 12.4 | 17 | 11.8 | 17 | 11.3 | 16 | 5.2 | 5 |
| SGP | 3.6 | 1 | 6.7 | 7 | 4.0 | 2 | 4.4 | 2 |
| SSCUP | - | - | 1.5 | 1 | 1.9 | - | 1.7 | - |
| SSP | 2.0 | 1 | 6.9 | 6 | 0.6 | - | 0.4 | - |
| 무소속 | 1.2 | 1 | 1.4 | 3 | 1.0 | 1 | 1.1 | 1 |
| 기타 | 4.4 | - | 7.5 | - | 8.6 | - | 4.5 | - |
| 투표참여율/ 총의석 | 59.1 | 129 | 49.4 | 129 | 51.8 | 129 | 50.0 | 129 |

SNP: 스코틀랜드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LAB: 스코틀랜드노동당(Scottish Labour Party)

CON: 스코틀랜드보수통합당(Scottish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LD: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Scottish Liberal Democrats)

SGP: 스코틀랜드녹색당(Scottish Green Party)

SSCUP: 스코틀랜드시니어시민통합당(Scottish Senior Citizens Unity Party)

SSP: 스코틀랜드사회당(Scottish Socialist Party)

출처: 정병기(2014, 120).

(27.3%)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44.0%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지역 자치에서 스코틀랜드민족당에게 기대를 거는 반면, 영국 의회를 비롯한 영국 전체 정치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노동당에게 기대하기 시작했다. 1968년 보수당은 독자 의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치회의체(Scottish Assembly) 수립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분권화를 반대하는 대처(Margaret Thatcher)가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다시 강경 통합 정책으로 선회했다(Thomsen 2010, 72). 이와 달리 1978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은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을 통과시키는 등 스코틀랜드 자치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⁸⁾

8) 스코틀랜드 자치를 찬성하는 비중이 노동자층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노동당의 정책

스코틀랜드민족당이 분리 독립을 주장한다면, 노동당은 분권 강화와 자치를 주장해 왔다(Scott and Wright 2012, 447). 하지만 두 정당은 자치권 강화가 복지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스코틀랜드 내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 경향에 잘 드러나고 있다. 보수당은 1987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21석에서 10석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1997년까지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고 2001년 이후에도 한 석을 차지했을 뿐이다(Nicoll 2014, 109-110). 반면 노동당은 1987년 총선에서 9석이 늘어 50석을 차지했으며, 이후 스코틀랜드는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보루가 되어 갔다(Nicoll 2014, 116). 실제 2007년 조사를 보면, 스코틀랜드인들의 노동당 고정 지지층은 스코틀랜드민족당(14.1%)보다 높은 18.8%로 나타난 반면, 보수당 고정 지지층은 7.4%에 불과했다(Johns et al. 2009, 216).

스코틀랜드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보수당 지지는 대부분 스코틀랜드민족당 지지로 전환해갔다. 이를 두고 노동당은 스코틀랜드민족당을 스코틀랜드의 상징인 고유의 격자무늬(tartan)로 비유해 '타탄 토리당'(Tartan Tories)이라고 부른다(McCrone 2012, 70).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치권 확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1997년 자치권 확보에서부터 분명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민족당을 지지하는 주민들 중에서는 69.9%가 분리 독립을 추구한 반면 2.3%만이 현상 유지를 원했다. 반면 노동당을 지지하는 주민들 중에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은 9.6%에 불과했고 분권 확대 추구 경향이 가장 높아 47.2%를 차지했다. 물론 노동당 지지자들 중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민들도 43.2%나 되어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보수당(72.0%)에 비해서는 절반에 불과했다. 이후

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79년 주민 투표 결과 자치권 부여를 찬성한 비율은 육체노동자에서 50% 이상, 비육체노동자에서 약 45%, 전문가 및 경영자에서 약 30%로 나타났다(Thomsen 2010, 80). 또한 노동 계급과 중간 계급을 비교해 보면, 1979년 투표에서 분권 지지율은 노동 계급에서 약 57%, 중간 계급에서 약 40%를 보였으며, 1997년 주민 투표에서 자치 찬성 비율은 노동 계급에서 91%, 중간 계급에서 69%로 나타났다(McCrone 2005, 77). 이와 같이 종사상 지위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자치나 독립 추구 경향이 다른 점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따로 다루지 않는다.

〈표 8〉 1997년 주민투표 지지 경향과 정당 일체감(%)

| | 현상 유지 | 분권 확대 | 분리 독립 | 전체 |
|----------|-------|-------|-------|-------|
| 노동당 | 43.2 | 47.2 | 9.6 | 19.2 |
| 스코틀랜드민족당 | 2.3 | 27.8 | 69.9 | 16.6 |
| 보수당 | 72.0 | 21.5 | 6.5 | 8.2 |
| 자민당 | 26.6 | 67.1 | 6.3 | 6.1 |
| 없음 | 30.9 | 51.1 | 18.0 | 49.9 |
| 전체 | 31.6 | 44.6 | 23.8 | 100.0 |

출처: 존스 외(2009, 218).

스코틀랜드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치권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정치 경제적 요인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2014년 스코틀랜드 주민 투표의 실시와 결과는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변해 온 지역주의 운동의 산물이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통합한 이후 대영 제국 부흥기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종족-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기간에도 자치에 대한 요구는 중단되지 않았다. 이 자치 운동은 19세기 중반에 조직화되었고 19세기 말 대영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점차 강화되었다.

특히 20세기 중반 영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고지대와 저지대의 갈등도 극복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1970년대 북해 유전 개발이 경제 자립의 전망으로 연결되면서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를 한층 더 단일하고 강화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2014년 이전에도 분권을 통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두 차례의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첫 번째 투표인 1979년 주민 투표는 실패했지만 1997년 두 번째 주민 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 투표를 통해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자치권을 부여 받았으

며, 이제 영국 중앙 정부는 스코틀랜드에 대해 유보 사안(reserved matters)의 범주 내에서 느슨하게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주민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자치권 확보 과정을 거치면서 스코틀랜드 지역주의가 보여준 흐름은 분리 독립보다 자치에 만족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종족-문화적 정체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웨일스나 북아일랜드 등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 정도가 더 약하다는 점 외에도 이미 더 광범위한 자치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1997년 자치권 확보 이후에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스코틀랜드민족당에 대한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총선 지지율이 급감한 대신 노동당에 대한 총선 지지율이 강화된 것을 통해 뒷받침된다. 스코틀랜드민족당 지지는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 의회 선거로 옮겨갔으며, 지역 차원에서 스코틀랜드 이익을 배타적·보수적으로 대변하길 원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스코틀랜드민족당의 입장과 잘 맞아 떨어졌다. 보수당이 영국 전체에서 브리튼 민족주의를 강조하듯이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정치적 대변에 대한 역할 기대를 지역 차원과 전국 차원으로 나누어 표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민족당의 통치를 기대한다면, 전국 차원에서는 노동당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동당이 스코틀랜드 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제 집권했을 때 분권화 정책을 실현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기대는 1990년대 말 스코틀랜드 자치가 현정상 기정사실화된 후 보수당도 분권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영국 총선에서 스코틀랜드의 표심은 압도적으로 노동당에게 기울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스코틀랜드민족당처럼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스코틀랜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가 분리해 나갈 경우 노동당은 총선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주민 투표에서도 노동당은 자치권 확대를 약속했지만 분리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에게 보이는 강력한 지지는 바로 그들의 다수가 분리 독립보다는 자치에 더 경도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스코틀랜드민족당에 대한 지지자들 중에서 분리 독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2/3 정도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주민 투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였다. 물론 거기에는 중

족-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깔려 있다. 종족-문화적 정체성이 스코틀랜드인들의 저변에 자리해 있지만 이 정체성도 이미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차별 지역이라는 지역주의 인식과 결합된 것이었으며, 독립 관련 투표는 그 차별의 정치적 해결을 선택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양 진영의 주장에서 본 것처럼 그 전망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일이 가까워올수록 분리 독립 찬성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게 영국 잔류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잔류 선택은 자치권이 이미 1997년에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투표 이후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상 유지 경향조차도 과거와 달리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투표 이후 영국은 곧 자치권 확대 논쟁에 빠져들었으며, 주민 투표 후 퇴진한 새먼드 전(前) 스코틀랜드 정부 수반도 자치권 확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독립 투표를 재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김태한 2014a; 2014b).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주의 전망은 향후 자치권 확대 과정에 달려 있지만, 분리 독립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존하는 스코틀랜드 지역주의는 종족-문화적 요인을 토대로 하고 정치 경제적 요인이 직접적 동원의 계기로 작용하는 복합적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표출 형태는 제도권 정치 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이며, 목표는 분리 독립을 폐기하지 않는 가운데 분권적 자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고일: 2014년 12월 15일

심사일: 2015년 1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30일

참고문헌

- 김중락. 1998. “1641년 잉글랜드의 분열과 스코틀랜드.” 『대구사학』 55집(대구사학회), 141-173.
- _____. 2011. “스코틀랜드 고지대(Highlands)의 정치문화와 영국혁명의 수용.” 『역사학연구』 43집, 1-39.
- _____. 2012. “16세기 스코틀랜드 고지대와 저지대의 갈등: 맥도날드(the MacDonalDs) vs 캠벨(the Campbells)의 대립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28호, 1-36.

- 김태한. 2014a. “스코틀랜드의 잉글랜드 입법참여는 정당한가? [...] 갑론을박.” 『연합뉴스』(9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2/0200000000A KR20140922001100085.HTML>(검색일: 2014년 11월 22일).
- _____. 2014b. “스코틀랜드 수반, ‘영국 EU 탈퇴시 독립투표 재추진 가능’.” 『연합뉴스』(9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2/0200000000A KR20140922001100085.HTML>(검색일: 2014년 11월 22일).
- 남철호. 2012a. “스코틀랜드의 차티스트 운동(Charterm): 1839년 국민공회(the National Convention)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3집, 275-309.
- _____. 2012b. “인민현장운동을 향하여: 1830년대 스코틀랜드의 인민현장운동 배경.” 『대구사학』 107집, 261-296.
- 안영진. 2003. “영국의 지역주의와 지방분권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권 2호, 105-118.
- 윤성욱. 2014. “2014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주민투표: 성공 또는 실패?” 『EU연구』 38호, 155-182.
- 윤익중. 2003.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화 고찰.” 『유럽연구』 17권, 187-211.
- 이영석. 2002.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국민 정체성.” 『대구사학』 66집, 53-77.
- 정병기. 2000. “이탈리아 정치적 지역주의의 생성과 북부동맹당(Lega Nord)의 변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397-419.
- _____. 2014. “영국의 분리와 통합: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역주의.” 분리통합연구회 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100-132.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영출. 2009. 『영국의 지역정책』. 청주: 개신.
- 허진석. 2012. “스코틀랜드 2014년 분리 독립 국민투표.” 『동아일보』(10월 16일). <http://news.donga.com/3/all/20121016/50132328/1>(검색일: 2013년 10월 12일).
- 호광석. 1997. “서유럽 국가의 지역주의와 지방분권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발표 자료집』, 143-171.
- 홍성표. 2007.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의 기원: 에드워드 1세(1272~1307) 통치기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48집, 213-243.
- _____. 2008. “윌리엄 월레스와 스코틀랜드의 독립 전쟁.” 『서양중세사연구』 22호, 89-124.
- _____. 2010.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원』. 청주: 충북대학교출판부.
- Blaschke, Jochen. 1989. “Der Regionalismus in Westeuropa als Problem ethnisch-politischer Mobilisierung.” Arbeitsheft, Berliner Institut für Vergleichende Sozialforschung in Berlin.
- Brand, Jack, A. 1985. “Nationalism and Noncolonial Periphery: A Discussion of Scotland

- and Catalonia.” Edward A. Tiryakian and Ronald Rogowski, eds. *New Nationalism of the Developed West: Toward Explanation*, 277-298. London: Allen & Unwin.
- Brown, Alice, David McCrone, and Lidsay Paterson. 1998. *Politics and Society in Scotland*, 2nd ed. London: Macmillan.
- Connor, Walker. 1967. “Self-Determination: The New Phase.” *World Politics* 20. No. 1, 30-53.
- _____. 1977. “Ethnonationalism in the First World: The Pres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Milton J. Esman, ed. *Ethnic Conflict in the Western World*, 19-45.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Beyond Reason: The Nature of the Ethnonational Bond.” *Ethnic and Racial Studies* 16. No. 3, 373-389.
- Cuthbert, Jim and Margaret Cuthbert. 2014. “Shaping Things to Come?: How Decisions on Statistical Disclosure and Analysis Influenced the Debate on Scotland’s Independence.” *Significance* 11. No. 3, 11-13.
- Esser, Hartmut. 1988. “Ethnische Differenzierung und moderne 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Soziologie* 17. H. 4, 235-248.
- Gerdes, Dirk. 1980, *Aufstand der Provinz: Regionalismus in Westeuropa*. Frankfurt am Main und New York: Campus.
- _____. 1985. *Regionalismus als soziale Bewegung: Westeuropa, Frankreich, Korsika: Vom Vergleich zur Kontextanalyse*. Frankfurt am Main und New York: Campus.
- _____. 1987a. “Regionalismus und Politikwissenschaft: Zur Wiederentdeckung von ‘Territorialität’ als innenpolitischer Konfliktdimensionen.” *Geographische Rundschau* 39. H. 10, 526-531.
- _____. 1987b. “Regionalismus in Westeuropa: Wie die Wissenschaft mit der Wirklichkeit Schritt zu halten versuch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ed. *Regionen und Regionalismus in Westeuropa*, 9-21. Stuttgart etc.: W. Kohlhammer.
- Haesly, Richard. 2005. “Identifying Scotland and Wales: Types of Scottish and Welsh National Identities.” *Nations and Nationalism* 11. No. 2, 243-263.
- Hechter, Michael. 1973. “The Persistence of Regionalism in the British Isles, 1885-196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No. 2, 319-342.
- _____. 1975.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London: Routledge and Kogan Paul.
- _____. 1978. “Group Formation and the Cultural Division of Labor.” *American Journal of*

- Sociology* 84. No. 2, 293-318.
- _____. 1985. "Internal Colonialism Revisited." Edward A. Tiryakian and Roland Rogowski, eds. *New Nationalisms of the Developed West*, 17-26. Boston: Allen and Unwin.
- Johns, Robert, James Mitchell, David Denver, and Charles Pattie. 2009. "Valence Politics in Scotland: Towards an Explanation of the 2007 Election." *Political Studies* 57. No. 1, 207-233.
- Law, Alex and Gerry Mooney. 2012. "Devolution in a 'Stateless Nation': Nation-building and Social Policy in Scot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6. No. 2, 161-177.
- _____. David. 1992. *Understanding Scotland: The Sociology of a Stateless Nation*. London: Routledge.
- _____. 2001. *Understanding Scotland: The Sociology of a Nation*, 2nd ed. London: Routledge.
- _____. 2005. "Cultural Capital in an Understated Nation: the Case of Scotland."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 No. 1, 65-82.
- _____. 2012. "Scotland Out the Union? The Rise and Rise of the Nationalist Agenda." *The Political Quarterly* 83. No. 1, 69-76.
- McLaren, John and Jo Armstrong. 2014. "Scotland's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Fiscal Implications of Moving to Independenc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227, R3-R12.
- McLean, Iain, Jim Gallagher, and Guy Lodge. 2013. *Scotland's Choices: The Referendum and What Happens Afterward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Nicoll, Alexander. 2014. "Scotland's Vote on Independenc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56. No. 3, 105-120.
- Preston, Peter. 2008. "Cutting Scotland Loose: Soft Nationalism and Independence-in-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0. No. 4, 717-728.
- Scotland's Referendum. 2014. <https://www.scotreferendum.com>(검색일: 2014년 12월 15일).
- Scott, Gill and Sharon Wright. 2012. "Devolution, social democratic visions and policy reality in Scotland." *Critical Social Policy* 32. No. 3, 440-453.
- Smith, Anthony D. 1969. "Theories and Types of Nationalism."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10. No. 1, 119-130.
- _____. 1979. "Towards a Theory of Ethnic Separat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2. No. 1,

21-37.

_____. 1984. "Ethnic Persistence and National Transform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5. No. 3, 452-461.

_____.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and New York: Basil Blackwell.

Stewart Leith, Murray. 2008. "Scottish National Party Representations of Scottishness and Scotland." *Politics* 28. No. 2, 83-92.

Thomsen, Robert C. 2010. *Nationalism in Stateless Nations: Selves and Others in Scotland and Newfoundland*. Edinburgh: Birlinn Ltd.

Walker, William. 2014. "International Reactions to the Scottish Referendum." *International Affairs* 90. No. 4, 743-759.

ABSTRACT

The Choice of Scotland in the Referendum and the Prospect of Scottish Independence Movement: The Autonomy based on a Compound Regionalism

Byungkee Jung | Yeungnam University

Most of the Scottish pursue the autonomy rather than independence although they have a unique national identity. It is because Scotland has been less discriminated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guaranteed more autonomy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However, as shown in the referendum of 2014, the separatist tendency is not so weak. Now the Scottish represent their interests through the SNP at the regional level and through Labour at the national level. Their most important interest is the politico-economical one. Scottish regionalism since World War II has been defined as a compound regionalism mobilized by ethno-cultural factors and influenced directly by politico-economic ones. It was expressed as rendering a support for a specific party on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respectively with the goal of autonomy, albeit not given up independence.

Keywords: Scotland, regionalism, independence referendum, autonomy, ethno-culture, politico-economy